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광양시,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큰 성과

컨설팅 통한 매출향상과 서비스 개선에 도움

광양시는 최근 시정 상황실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 업소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대회에서는 지난 3월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형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선발한 지역소상공인 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한 경영컨설팅에 대한 사업경과와 성과 발표가 진행됐다.

컨설팅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수행과제부터, 이행도 점검으로 체계적이고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홍보마케팅, 매장관리, 세무관리 등

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기존에 진행했던 일회성 컨설팅에서 과감히 탈피해 전문경영컨설턴트를 통한 업소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참여 업주에게 주인의식을 부여하는 등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협동조합 청춘'은 300%이상의 매출 상승과 함께 2명을 신규 채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토방' 210%, '덕양급창' 110%, '달다쿠' 87% 등 15개 업체의 매출이 크게 상승하며 서비스 개선에 도움을 주는 등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정현복 시장은 채일성 전남신용보증재단 자영업종합지원센터 센터장과 박민우 컨설턴트에게 표창장을 각각 수여했다.

정현복 시장은 "힘든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여기에 계신 관계기관 및 업소 대표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며 "시의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내년에는 경제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소상공인의 지원 정책을 최우선으로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력을 통해 경영컨설팅, 금융이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김승호 기자

시민이 직접 뽑는 '2018년 순천 10대 뉴스' 발표

1위 '순천 랍사르 습지도시 세계 첫 인증' 차지



순천시는 4일 시민이 직접 뽑는 '2018년 순천 10대 뉴스'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10대 뉴스는 시민들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작년보다도 입한 카카오톡 모바일 투표 및 현장 투표 등을 활용하여 선정하였다.

선정 결과 1위는 '순천 랍사르 습지도시 세계 첫 인증'이 차지했다. 시는 지난 10월 두바이에서 열린 제13차 랍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내외 심사위원들로부터 후 두루미 서식

습지도시 세계 첫 인증'이 차지했다. 시는 지난 10월 두바이에서 열린 제13차 랍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내외 심사위원들로부터 후 두루미 서식 지 보전을 위한 주민의 노력, 습지 보호지역의 확대 및 습지 복원 등의 노력을 높이 평가 받았다.

2위는 신암사 '세계유산 등재, 3위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생의 등하교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 '전국 첫 초등생 100원 버스 운영'이 선정됐다.

이 밖에도 △전국 최초 지방세 '카카오톡 간편납부서비스' 시행 △민선7기 새로운 순천, 시민중심으로 시정 혁신 △전국도시재생박람회 유치 및 정부예산 508억원 확정 △순천만국가정원 4년 연속 관람객 500만 달성 △순천시청센터 '꿈꾸는청춘' 개소 △순천로컬푸드 직매장 매출 100억원 돌파 △순천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등 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한 정책과 실행할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올해의 10대 뉴스에 이름을 올렸다.

허석 순천시장은 "민선7기 출범 이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순천을 만들기 위해 달려왔다"며 "내년에도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 행복을 높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천=황경석 기자

'제16회 보성차밭 빛 축제' 14일 광파르

마음을 전하는 이벤트 · 특수조명 · 다채로운 즐길거리 등



보성군에서는 오는 14일부터 2019년 1월 13일까지 한국사문화공원 일원에서 제16회 보성차밭 빛 축제가 펼쳐진다.

오는 14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31일간 마법의 성 보성차밭에서는 겨울왕국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빛 축제는 색다른 볼거리, 즐길거리를 선보이고, 희망의 불빛으로 보성의 겨울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예정이다.

올해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서 모티브를 얻어 전체적인 구성이 완성됐다. 흰 눈으로 덮인 차밭에

매일 밤 화려하고 따뜻한 불을 밝혀 '마법의 힘이 있는 빛의 왕국'을 만들어 전국 관광객을 맞이한다.

보성군이 준비한 겨울왕국에서는 추위를 뚫고 피어난 만 송이의 LED 차 꽃이 어두운 밤을 밝히고, 다양한 색의 눈사람, 디지털 나무 등을 설치하여 차밭과 공원 일대가 형형색색의 빛으로 연출 된다. 또한, 매일 밤 눈이 내리는 광장에서 빛 체험과 화려한 영상쇼가 펼쳐진다.

관광객들은 곳곳에 있는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대형 LED 스크린을 활용하여 사랑하는 이에게 사

연을 전하는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 건너편 못재 건물 외벽에는 새해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상이 연출된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에어돌 하우스는 환타이자 체험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규모는 165㎡로 2개소가 설치되며 소망카드와 빛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된다.

이외에도 빛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겨울의 낭만을 선사하고, 가족·연인과 따뜻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토요일과 크리스마스에는 버스킹 공연과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 등의 행사를 준비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보성 빛 축제는 1999년 12월 빌레니엄트리로 시작으로 한국기네스북에 등재되며, 한국 빛 축제의 효시로 20여 년 동안 명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지역대표 명소인 보성차밭과 빛 축제를 브랜드화하여 매년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가족단위 여행객과 연인 등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겨울철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빛 축제장 근교에는 휴식의 공간 울포해수욕장센터, 제암산자연휴양림, 비봉공룡공원, 비봉마리나, 득량만 선소낙시공원 등이 있어 온 가족이 함께 휴식과 해양레저 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순천시, 농업 농촌자원사업 점검사

농촌자원 활용 생활개선회 역사기록물 대회 '대상' 농촌자원 융복합 활성화 우수기관 '장려상' 수상

순천시는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촌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따른 점검사에 그동안 추진해온 미래농업의 희망을 더욱 크게 열고 있다.

어렵고 힘든 시절 우리 마을부

터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생활개선회구락부로 출발한 생활개선회가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하면서 "농촌자원 활용 생활개선회 60년 역사기록물 경진대회에서 한하숙(순천시 연향길/74세)

남이 대상을 수상했다.

농가용 가계부가 보급되기 이전 1974년부터 갭지에 기록하기 시작했던 가계부가 생활지도사업의 역사를 그대로 부여주고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한 것이다.

지난 10월 농촌자원사업을 평가하는 '농촌자원 활용 융복합 활성화 우수기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아 순천시의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경제청, 광양알루미늄 관련 설명회 갖고 논란 해명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세풍산단에 입주예정인 광양알루미늄 공장 관련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3일 여수광양항만공사 국제 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갑섭 청장을 비롯한 광양경제청 관계자와 사업자인 광양알루미늄(주), 외부전문가와 광양지역 환경단체 관계자 및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광양알루미늄(주)의 입주 추진사항과 환경, 국가경제와 통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광양알루미늄(주)의 세풍산단 입주와 관련, 최근 일부 매체 등을 중심으로 환경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미 통상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보도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광양경제청과 외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전혀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심사인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광양알루미늄은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제련 및 정련 공정이 없는 판재와 호일공장이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광양알루미늄은 외국에서 제련과 정련공정을 거친 알루미늄 슬라브를 반입해 판재 및 호일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생산공정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는 전기와 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부 전문가로 참석한 포항공대

윤우석 교수는 "알루미늄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련 및 정련과정을 거친 알루미늄 슬라브를 이용해 판재나 호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단순 압연공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LNG로 인한 환경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중국 자본이 투자하는 광양알루미늄(주)가 가동될 경우 국내 알루미늄산업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광양경제청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광양알루미늄(주)는 연간 알루미늄 판재 10만톤과 호일 2만톤을 생산하게 된다. 생산된 제품의 90%는 수출하고, 10%는 내수용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광양=김승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소 운동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